

포천문화원 청소년 음악회 개최

유익하고 다양한 프로그램 선보여



지난 13일 포천중학교 은행관에서 청소년 1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소년 음악회'가 개최됐다.

포천문화원(원장 이만구)은 지난 13일 포천중학교 은행관에서 청소년 1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소년을 위한 음악회를 개최했다.

이날 프로그램은 감미로운 선율의 클래식 공연을 비롯해 관내 학생들로 구성된 스포츠 댄스, 합창, 퍼포먼스 등 청소년의 정서에 맞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선보여 청소년들에게 유익한 시간이 됐다.

이만구 포천문화원장은 "진리탐구와 각종시험 등에 수고가 많은 학생들에게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고자 프로그램을 기획했다"고 말하고 "더 큰 꿈을 갖고 학업에 정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백성주기자 paek1031@nate.com

"환경대상" 운영조례안 마련

수상후보자 추천은 시 단위 기관단체장 또는 읍·면·동장

포천시가 "시 환경대상 운영조례안"을 마련하고 오는 28일까지 이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받고 있다.

이 조례안은 지역환경 보전을 위해 크게 공헌한 개인, 단체, 기업 등에 대해 "포천시 환경대상"을 시상함으로써 이들을 격려하고 환경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며, 더욱 맑고 깨끗한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제정이 추진되고 있다.

조례안에 따르면 포천시 환경대상은 ▶학술관련 ▶기업관련 ▶환경운동관련 등 모두 세 부문에 걸쳐 각 1명씩을 선정해 매년 6월 5일 환경의 날에 시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조례안은 또 시상예정일 현재 포천시에서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거나 근무한 사람 또는 활동한 단체 가운데 ▶수질, 대기, 토양 등 환경보전을 위해 신기술을 개발 또는 보급하거나 ▶제조업, 농업업, 서비스업 등의 생산 활동을 환경친화적으로 영위해 환경오염을 줄이는데 기여한 개인 및 단체, 그리고 ▶소비절약, 자원재활용, 환경교육,

환경보전을 위해 타의 모범이 되는 활동을 하거나 시책을 추진한 개인 및 단체 등이 환경대상 수상후보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환경대상 수상자를 심사하게 될 "환경대상 심사위원회"는 포천시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해 공직직사자가 있을 때마다 관계 공무원이나 의회의원, 환경단체 및 환경 관련 분야 인사 가운데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 위원들을 포함, 모두 9인 이내로 구성되며 여기에서 공적심사를 총괄하고 수상자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수상후보자 추천은 시 단위 기관단체장 또는 읍·면·동장이 할 수 있도록 돼있다.

이 같은 조례안에 대한 의견은 서면이나 우편, 컴퓨터 통신 등을 이용해 12월 28일까지 제출하면 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포천시 인터넷 홈페이지(www.pcs21.net) "입법예고"란을 참고하거나 포천시청 환경보호과(☎ 031-530-8241)로 문의하면 된다.

정병갑기자 jpk61@paran.com

우리 동네를 말한다 ⑬

군내면 직두리 이장 윤봉현

"정보화마을은 시작일 뿐입니다"

'버섯마을', '정보화마을'은 직두리의 대표 명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마을의 이장을 맡은 지 이제 1년이 되었다는 윤봉현(42)이장.

윤 이장은 "직두리는 옛지명의 피머리로 '피'는 직(獲)으로 볼 수 있고, '머리'는 높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어 과거 피밭이 비교적 높은 곳에 있던 지역일 것이다"고 소개했다.

직두리는 현재 300여세대 1천여명의 주민들이 거주하는 군내면 최대의 마을이다.

윤 이장에 따르면 "주민의 35%가 농업에 종사하고 쌀과 잡곡이 주산물이나 원예와 채소의 재배가 큰 소득원을 이루고 있다"며 "특별 소득사업으로는 느타리버섯 종균장과 버섯재배, 버섯스낵, 포도, 전통한과, 깨, 인삼, 꿀 등과 육우(育牛)사업을 활발히 진행해 주소득원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직두리는 2002년 정보화마을로 지정돼 지난해 2월 20명 규모의 마을정보센터를 개설했다.

이 센터에는 PC 15대, 프린터 2대, 랜(LAN) 및 전기시설, 인테리어, DVD 및 음향시스템, 대형멀티 스크린, 디지털 카메라와 무인인원발급기, 회의실 등의 시설이 구비돼 있다.

윤 이장은 이 시설을 활용, 전자상거래분야로 특화시켜 마을 소득원으로 활용하고 있다.

"처음 계획처럼 소득이 들어오지 않는다"며 "어려운 경제현실을 반영이라도 하듯 전자상거래 하나만으로는 마을 경제 발전에 큰 도움이 안 된다"고 토로했다.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윤 이장은 수입증대의 해법을 찾고 있다.

"정보화마을이라는 장점을 통해 전자상거래와 더불어 주말농장, 농촌체험학습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길 바란다"며 "포천을 알릴 때 정보화마을을 함께 홍보해 주고 주민 자체적으로도 인터넷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마을정보센터는 주민



정보화마을에서 직두리의 비전을 찾는 윤봉현 이장.

들이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윤 이장은 "처음엔 시에서 인터넷요금 등을 보조해 주었지만, 현재는 운영위원회를 통해 전자상거래의 이익이나 마을기금 등으로 모든 운영을 하고 있다"며 "한달 60여 만원의 운영비용이 필요한데 최근에 이를 감당하기도 힘들다"고 밝혔다. 이어 "운영의 혁신이 필요한 시점이다"고 덧붙였다.

직두리에는 또 다른 자랑거리가 있다. 2002년에 조성한 넓고 깨끗한 체육공원이 있기 때문이다.

윤 이장은 "250평 규모의 체육공원이 마을 입구에 조성돼 주민 누구나 이용하고 있다"며 "특히 게이트볼 팀과 족구 동호회는 관내 각종 체육대회에서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거주 주민들은 많이 있지만 마을사업에는 주로 원주민들이 참여하고 있다"며 "직접 참여는 못해도 모든 주민들이 마을 발전을 위해 열심히 응원해 달라"고 당부받았다.

윤 이장은 앞으로 직두리를 발전시키기 위한 포부를 "현재 운영하고 있는 마을정보센터에서 실시되는 인터넷 교육에 더욱 매진하겠다"며 "마을의 주민구성이나 산업이 도·농복합도시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어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포천버섯마을
http://mushroom.invil.org
지하배기자 94spice@hanmail.net

인터뷰 포천의제21 김홍환 사무국장

政·官·學·시민단체의 교류 필요

"환경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이 있다고 판단돼 사무국장으로 임명된 것 같다"는 포천의제21 신임 김홍환(46·사진) 사무국장.

김홍환 사무국장은 춘천제일고(現 강원사대부고)를 나와 정화초 수직문반업체에서 2003년까지 정화초 시설물 설치·관리업무를 담당했다.

지난 1일 포천의제 21 사무국장으로 부임한 김 사무국장은 "처음에는 의제21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이 부족했던 것 같다"며 "하지만 직무를 맡게 된 후 업무를 파악해 본 결과 기존에 생각했던 것과 일치했다"고 밝혔다.

포천의제21을 접한 김 사무국장은 인식의 전환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처음 의제21을 접했을 때 기존에 갖고 있던 환경의 국소적인 해결이 아니라 기본적인 환경에 대한 모든 인식이 전환돼야겠다는 생각을 했다"며 "지구온난화 등 인류의 생존과 직결되는 지구환경오염을 방지해야겠다는 마음가짐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 사무국장은 현재의 포천의제21의 위치와 방향성을 간략히 설명했다.

"12월 16일은 포천의제21이 출범한지 4주년이 다"며 "최초의 몇 년간이 의제의 기반을 다지기 위한 추진단계였다면 지금은 최초의 목적과 일치할 수 있도록 실천하는데 앞장설 때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은 자라나는 학생들과 어울려 새로운 문화창달에 단초가 되는 의제21을 구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달 정도면 업무과약을 확실히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김 사무국장은 현재의 의제21을 발전시키기 위한 대안을 제시했다.

"현재 의제21은 각종 사회단체의 구성원들이 중심이 돼 일반인들보다는 한단계 높은 수준에서 운영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의견 통일에서 난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현재의 조직에서 ▶기획·홍보 ▶환경·생태 ▶산업·경제 ▶문화·복지로 세분화해 운영한다면 한차원 더 높이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김홍환 사무국장

이같이 세분화한 조직 구성에 대해 "업무를 세분화하고 전문화한다면 일반인들에게 환경의 폭넓은 인식을 불러올 수 있고, 환경과 관련한 모든 부분을 보호하고 알릴 수 있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 4개의 분과가 잘 어우러진다면 政·官·學·시민단체가 어우러져 좋은 방향을 모색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김 사무국장은 협의의 인식전환에 대해 강조했다.

"의제21은 개혁을 주장하는 진보단체가 아니다"며 "환경 운동이라는 것이 가시적으로 나타나지는 않지만, 인류의 미래가 달려있다"고 설명했다.

"합의의식전환을 통해 협의할 수 있는 마인드를 구축한다면 지금보다 더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지하배기자 94spice@hanmail.net

운천3리, 운천8리 경로당 준공

포천시청 "저소득층 보험료 전액 지원 등 복지시책 강화"

포천시 영북면 운천3리 경로당과 운천8리 경로당 준공식이 17일, 박윤국 시장을 비롯한 시 관계자들과 지역 기관단체장 및 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이 자리에서 박 시장은 축사를 통해 포천은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노인들과 어린이들이 살기 좋은 곳"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복지인프라 확충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 2005년 새해에는 65세 이상 노인세대 중 월1만원 미만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저소득층에 대

해 보험료를 전액 지원하는 등, 복지시책의 영역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운천3리 경로당은 30평, 운천8리 경로당은 50평 면적으로 각각 9천 6백만 원과 1억 5천만 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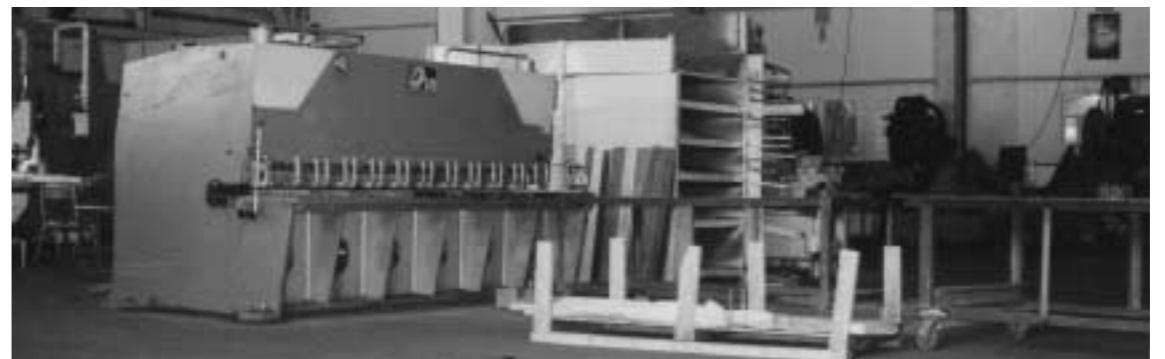
특히 운천3리 경로당에는 영유아방이, 운천8리 경로당에는 헬스장이 설치돼, 지역 노인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경로당의 새로운 역할 모델을 제시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영복기자 best114@paran.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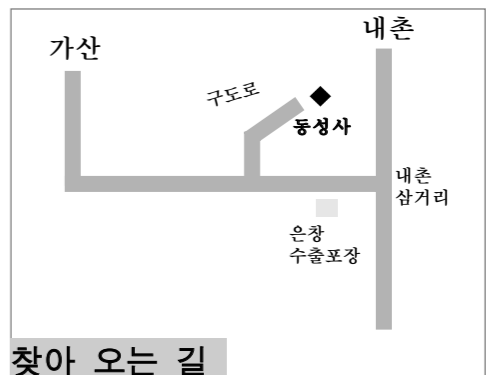
포천시 영북면 운천3리 경로당과 운천8리 경로당 준공식이 17일, 박윤국 시장을 비롯한 시 관계자들과 지역 기관단체장 및 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가구 장식용, 인테리어 소품생산 전문 동성사



생·산·품·목

- ◇ 오디오 장식장
- ◇ 인테리어 소품
- ◇ 가구 장식품 부품
- ◇ 불박이장 부품
- ◇ 드레스룸 장식장 부품 (APT)



경기도 포천시 내촌면 진목리 5-1/ Tel: 0311532-2123, Fax: 0311532-2122/ 대표 : 윤 이 용